

# “전남지역 겨울 축제로 올 한해 마무리하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전남지역에서 겨울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빛과 예술의 축제, 겨울 자연과 꽃의 조화로운 정원축제, 서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해넘이·해맞이 경관 등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진행되는 ‘함평 겨울밤 빛축제’에선 미

디어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과 다채로운 경관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빛과 예술의 아트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축제 기간 매주 금·토요일 체험 부스와 먹거리 판매존을 운영하고 토요일 저녁 콘서트와 EDM파티를 통해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에선 오는 13일부터 1월12일까지 1004섬 신안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분재정원 내 3km에 이

함평 겨울밤 빛축제·신안 섬겨울꽃 축제·담양 산타와만남 순천·여수·해남·진도·보성 등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다채

르는 얘기동백 숲길에서 피어나는 4천 만송이의 얘기동백꽃은 관광객들에게 황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플라워와 플라워 아치 등 포토존도 조성돼 겨울 정원의 매력을 더한다.

담양에선 24-25일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탈바꿈해 산타와

의 만남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야경 포토존과 지역특산물 활용 먹거리 판매 공간을 통해 오감이 즐거운 축제를 제공한다.

또한 12월31일과 1월1일 2024년 갑진년을 마무리하는 해넘이 행사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가

5개 시·군에서 열린다.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순천·여수·해남·진도에서 열리고 보성에선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해남 땅끝 전망대, 진도 세방낙조 전망대, 여수 향일암, 순천 외은해변, 보성 울포해수욕장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만나는 해넘이·해맞이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시·군마다 음악회, 불꽃쇼, 드론쇼, 떡국나눔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특색을 더하고 있다.

무안에선 2025년 1월20일부터 이틀간 해제면에서 겨울 송어축제를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인 황금송어 잡기와 퀴즈대회, 송어초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판매 행사를 통해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연말연시 전남에서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들이 많다”며 “많은 관광객이 전남의 축제장에서 겨울의 낭만을 즐기고 따뜻한 추억을 선물 받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기자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한 조형물이 10일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 모습을 드러내 시민들이 '소년이 온다' 등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군공항 범정부협의체’ 재개 무산

계엄 사태 여파...국무조정실, 실무회의 결국 연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재개가 무산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 기관 실무자들의 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당초 회의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가운데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주요 안건은 군공항 추진상황 청취, 이 전지역 지원방안 등이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국방부와 실무자 회의를 열어 회의 일정과 안전 조율까지 마쳤으나 정국 혼란으로 후속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당분간 협의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은진기자

## ‘한강의 꿈, 광주의 빛’ 내년 1월말까지 불 밝힌다

市,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 조형물 점등식

광주시는 10일 시청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 조형물 점등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고 포토존에서 추억의 사진을 찍으며 크리스마스과 연말연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축하 조형물을 기획했다.

시청 행정동 앞 높이 12m, 길이 49m 크기의 아치형 구조물인 ‘빛고을무지

개’에 발광다이오드(LED)로 조명을 설치했다. 전면부에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포토존을 조성했다.

포토존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작품 표지를 형상화한 조형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한강 작가, 프라야구 KIA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등 인물 조형물 ▲‘한강의 꿈 광주의 빛’ LED채널 조형물 등 총 3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축하 조형물은 내년 1월31일까지 불을 밝힌다. /변은진기자

## 김지사 “참담한 시국 속 또 다른 희망의 빛”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오전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작가의 문학의 근원인 사랑이 지속되고 인간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한강 작가의 시

상식에 맞춰 축하 성명을 통해 “역사적 수상 소식은 국민 모두에게 박찬 환희와 감동의 전율을 선사했다. 문학을 넘어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국격을 드높이는 희망의 빛,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갑작스러운 국가지정 비상사태로 매우 엄중하고 참담

한 시국 속에서 한강 작가의 문학은 국민에게 또 다른 의미의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며 “폭력과 억압은 절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역사임을 일깨우며, 폭력으로 훼손된 민주와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는 희망의 등불이 돼 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G-패스’ 교통카드 디자인 확정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디자인이 확정됐다.(사진)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8-22일 광주는(ON) 설문과 오프라인 투표 등 시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주G-패스’ 카드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카드 디자인은 광주문화관광 캐릭터인 ‘오메가’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광주가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G-패스’ 카드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편의점 등 한페이카드 지정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광주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대중교통비를 할인·환급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광주G-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변은진기자

남도밥상

을 지키는 사람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광주매일신문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